



송 동산 여사.

송 동산 여사는 1915년 3월 29일에 함경북도 성
진에서 탄생하여, 1918년에 어머니 등에 업혀서
로렌지 원동변강 산바스크 구역에 오게 되었다.
원동에 도착하자 송여사 부친은 흥남도 장군의 의
병대에 참가하여 원동 지역으로 복귀 황제 러시아
백제군을 창설할 때까지 군속으로 지냈다. 다음 원
동변강에 의회국권이 수립되자 송여사는 학교에 단
나기 시작하여 자라촌에서 초학교로, 초급으로 진학했다.
그 후 원동변강 소왕령이란 도시에 가서 한문 사전을
1936년에 필하였다. 사전을 나온 이후 원동에서 일
년간 초중학교 교원으로 일하시다가 원동으로 복귀의
한인들의 강제이주에 의하여 북으로 함께 가지는
공화국 한광도시인 개라강다 시에 도착하였다. 당시
계제제는 우리 한인 이주민 전부를 죄인으로 인정해서
많은 경우에 공민증을 부여하여 주지 않으니, 한인들은 50킬로
메타 이내에서만 살면서 타국으로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그당시에 원동사원에서 공부할시 약혼한 당자가 있었다. 2
그러나 그들은 원동에서 서로 단 단 구역에 살았기때
문에 한인 이주시 서로 단 열차에 단 지역에 살려
오게 되었다. 송희이주후 그를 많이 찾았으나, 또 찾는다치
고도 서로 가서 만날수가 없으니, 이것이 그의에게 있어서
비극이었으며, 이러한 처지에 속한 수천명의 한인들에게
비극이었다. 이당시에 그들물다 한인사대에서 공부하
고 있는 언니 남편의 주선에 의하여 그는 북으로 돌아함께
그들물다에 어주하게 되었다. 이당시에 한인들에게 향하
여 한인으로 공부하는 것을 전적으로 폐지한관계로 그는
고원노릇을 할수없어 그들물다시 재봉공장 재봉공으로
취직하였다. 재봉공으로 약 2년간 일하여 인제는 벌써 가능
공으로 되어 경제 형편이 좀더지려하는 환경에서 1941
년 여름에는 소련 조국전쟁이 개시되었다. 전쟁으로
말미아라 인민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그에따라 식량
곤란뿐 아니라 임노동도 그렇지만 집에 불타일 석탄이
부족하여 큰 곤란이 생기자 시 인민위원회는 각직장
별로 인민들을 동원하여 대일 나무를 비목적으로 썩샤
을 밝은으로 보내게 되었다. 이때에 각직장에서는 남과
들어간 전역다 전선에 동원되어가고 남는것이 여과
를 뽑아기에 아이없는 녀자들은 다 동원하는바람에 송
동산 녀자로 이에 동원되어 동복을 입고 크다란독
끼를 띠고 100여 킬로미터 거리되는 데로 동원되
여 가서 5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에 여러친구들과 함께 재봉공장부
리가지로 책임으로 일하는 장아가되어야 할하기를 관
약 네가 시집을 가지않고 계속혼자름으로 있게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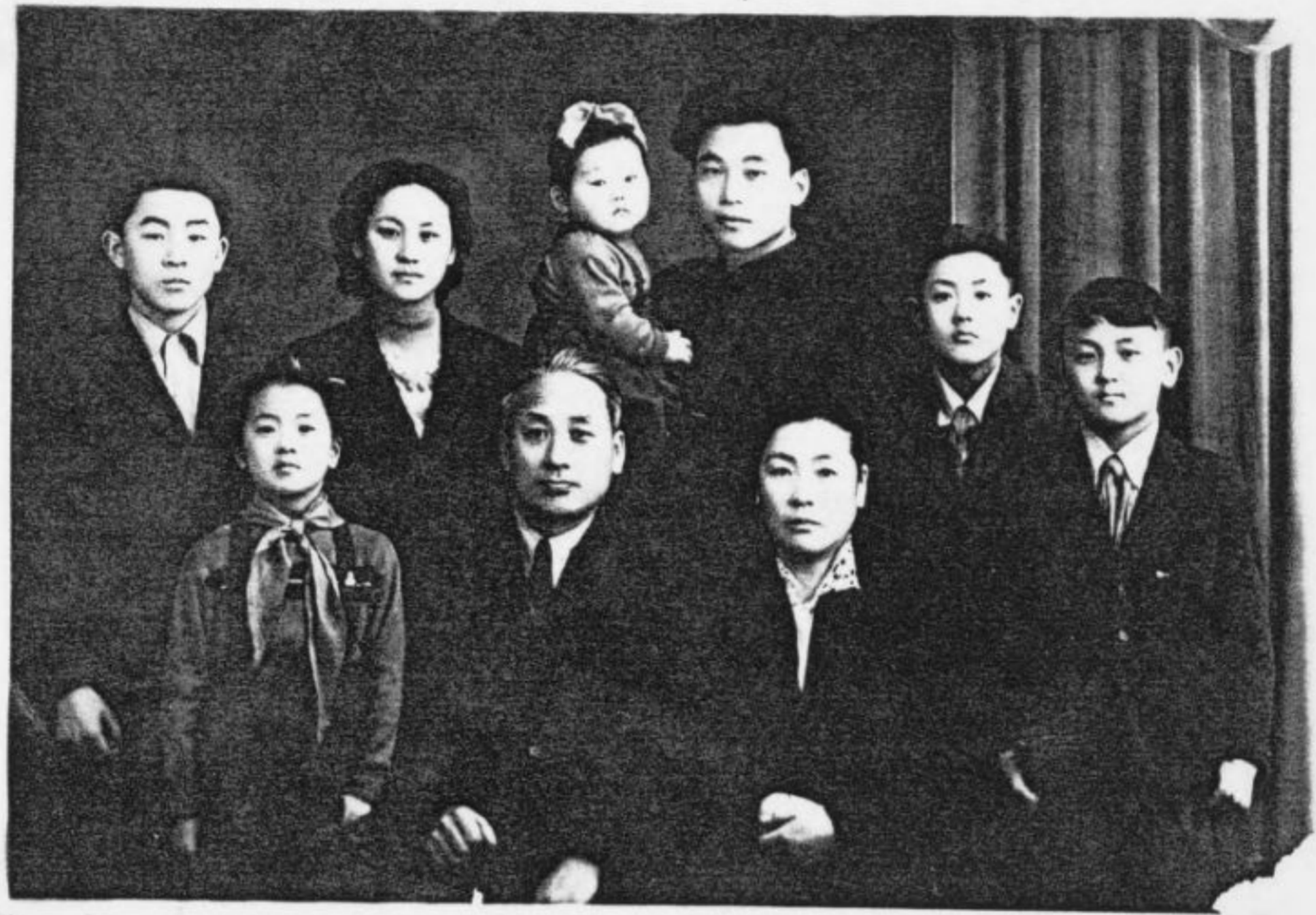


사진은 송동산 여사가 자기 남편
 안운경 씨와 같이 1997년에 찍은 것임

이런 증원이 종종 잊을 터이니 좋은 자리를 택하여 시집
 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안원경 동무에게 권득
 하였다. 아가피야는 ¹라하기를 그는 장강을 가서 살림하
 다가 복언이 상하하여 형제 혼자나 뉘언더 나랏어 하루
 좋은 호연이라곤 하였다. 그대에 용여사의 자기 생각에
 도 일년에 반년씩 동북편에 동원되어 싹새로 밭에 가서
 외생 조건이 불결한 합숙생활을 하노라면 언제나 조국 전쟁
 이 끝나고 현명한 미래가 돌아오겠는지 기다리기 조차 어려
 운 시기에 그 권득에 응하고 상대자와의 대면을 하여보
 니 한편 값이 과이 나쁘지 않게 예상되었다. 용여사는
 크를 몰라에서 몇번 ~~한번~~ 한후 그와 일생을 같이 살 약속
 을 주고 그의 뒤를 따라 동북으로 가게 되었다. 그의 집에 드
 착하니 두방에 식구들이 가득 차 앓아 자 그들로 대하였다.
 우선 병든 할머니 - ¹밖 앓을 일을 못하노 어가 계셨고, 다음
 권취에게서 난 아이들 5명, 권취에 나가 희생된
 친동생의 아이들 2명 자기네 2명, 합하여 10명
 의 인구가 한집에서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니 한숨
 뱉어 아이라 골이 핑 돌아가는 것 같기로 하였다. 그에다
 농촌에서는 교원 배급이라 식구는 얼마던 교원 월령에
 든 날새 4은 월가루 30 킬로 그랄외 아무것도 없었다.
 이 식량을 가지고 하루에 열 식구가 오끼씩 먹는다
 하여도 한달은 어떻게 입에 풀칠하려 살수 있으나
 그 난까지 15 일간은 문제였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가
 시집을 온 결심에 대하여 후회한 일도 없었지만 어제
 결심을 결하였으나 1월후는 무슨 없다 하고 어찌 재현 계속
 살아야 된다고 재삼 결심하였다. 사는 데는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 대책이란것은 그곳이 응봉이기때문에 다.
가을곡식가리라 가리였던 자리나, 꾀바임으로 후후한 논밭,
밭이 무지어 높고 하곡한 마당들이 있으니 이곳을 단너
러 붙고, 또 벼이삭 주기로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돈이 여려야 많이 죽을수 없기 때분
에 아이들도 학업중에 ^{고급}병식 일출 되어 대리근
단너면서 벼이삭 주기와 마당 철어 일기로 살게되
였다. 이 일은 당분간이 아니라 집안이 빈궁하다보니 해서
다 철어 들어보면 보되 벼이삭 주기 부터 시작하면 벼이삭
죽기로 넘어가 겨울에 벼눈이 내리면 곡식가리가 가리
였던 자리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다가 벼마당
질어 끝내면 그 벼마당에 가서 북대기를 파서 집나
도는 꾀바임에 나가 벼집을 철어서 벼알이 떨어지는
것을 물에 쌀을 만들어 죽을 부쳐 조곰씩 식량부족은
하여 먹었다. 이렇게 복잡하고 빈궁한 생활을 하면서 동
등산 여사는 자기 과거를 회고하고서는 후회한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으며, 아이들 물레 들어본일은 한두번
아니었다. 이때에 만악 주인되는 안원경씨가 사람
됨이 나빠서, 그의 나쁜 행위로 동여사를 조급어라로
노여 되는 일이 있다면, 더 두말없이 떠날사람을 내
팽래치고 과거처럼 다시 재봉공장에 가서 일할생
각이 골목에서 다시 회고 되곤 하였다. 동여사의 생각
에는 항적 공장에서나 때로는 더 애로 많은 삭시를
동북문비발에 가서라도 진공일 일하고서도 저녁이면
자유롭게 웃음으로 웃고, 동북문과 동탑의 이야기로 난무로

592 H



송동산 여사의 가족사진: 앞줄 좌편으로부터; 송동산
 여사, 남편 안윤경 선생; 맏째 딸 안류드빌라, 모스크바
 국립 문화 대학 졸업후 레닌형형극명도서관 책임도서관원
 으로 22년간 일한후 현재 서기장으로 일함; 장남 안계린만
 대학 수석교수; 차남 안도르르 고종자연학 교수, 삼남 안빌로
 리 - 모스크바 중대 화학학부 학사; 큰딸 안피라라 - 모
 스크바 외국어 대학 졸업, 현재 북한거주, 사위 방환주
 북한 출신, 모스크바 중대 졸업, 현재 북한거주, 삼남
 안세르게이, 모스크바 "번리마" 회사기사; 오남 안블라
 지리르 - 건축기사, 건축 현장장; 육남 안비바할 - 모
 스크바 지질학사 대학 졸업, 현재 원자 지질 물리 및
 화학 대학 책임기사,

하릴 때든 대사의 만우경 기록대에게 시집식리는
 하여도 끝없고, 가리가 나리 않고, 또 혼란이 흐리얕은
 일이다, 또 누가 잘 했나, 고맙단 말 한마디 예워주지
 않음, 또 대해, 흥전 일전로 싸지 않음, 길가에서는 누누런
 면복있는 사람을 맞아가야 남을 들리고 단니는 일어기
 막혀였다. 이 고생스럽음 자기 생활에 대하여 본기를 —
 복잡함 나의 생활, 고생함은 나의 생활, 무늬없는 나의 생활
 할 때로 세월은 이렇저렇 흘러서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
 가자 벌써 그 사이에 나에게서도 아이 4명이 나서, 언제는 아이
 8명의 어머니가 되었나 - 라고 되였다. 이런 형편에서 앞으로
 좋은 생활이 예정되지 않았으며, 계속 갈수록 닥사리
 밟아라고, 더 심한 고생이 닥쳐올 것을 무려워 하려서도
 그러나 그 하고 아무런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살겠다
 고 맹세한 몸이니, 행여나 남이 살면 우리도 살겠지
 하면서 그래도 인간의 고상한 가치만 준수한다면 저
 많은 하늘이 나를 보고 돌아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 후 얼마 안되나 남편 만우경 선생은 소련 내무성 내신
 으로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홍역관으로 임명되며 일
 하게 되었다. 봉급은 많지 않음, 월봉 2500 루블리에 세
 금, 공채권, 또 공부하는 두 아들에게 봉급하고 하선 약 1500
 루블리 잔액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나 그래도 소련의 4년
 생활은 동흔 선봉 깃발로 "아담함이" 생활에 대한 해탈이
 없이 좋았다. 봉여사는 모스크바 생활에서 큰 결례 형편
 이 비바 비바 하리 보니 면복있는 사람들로 만났으나 그들과
 넓게 사귀지 수가 없었으며 북한대사관 녀각도 하곤은 말과

생활양식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별로 친절하게 사귀는
 우가 없었다. 안문정 선생은 북한 대사관원들의 선임을 받아 평
 은 기일내에 흥덕관, 2등 서기관, 1 서기관에서 일하시다가
 1954년 9월 28 일에 평양 외무성 기일복장에 가리송주
 되어 일하시었다. 이제부터 어아래도 송여사가 쓰신대
 로 내가 정서하는 정도로 서술하겠음:

- 1954년 말에 평양에 도착하니 원민 생활은 배급제
 도로서, 사회의 지위를 따라서 배급도 계층별을 하군 하였다.
 사회생활 불의기는 사상검술가 횡행하는바람에 - 종파주의
 4, 가족주의, 나라에 변질되니, 돈 무엇무엇을 축산하는 불의
 기록에서, 일부간부들은 중국으로 도망치며, 소련에서 온 간부
 들에게도 주목을 돌리는 환경에서 죄야 있던 없던 처벌하는
 데에 근심 조심심으로 살았음이다. 1959년로 초에 남포
 이 철직당하군, 열을동안 주목을 받으니 사상검술 회의에
 매일같이 참석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상검술 위원중에는 당
 중앙위원회 지르 원어 참가하게 되었을바라 바를 그사람어
 한동안 모스크바 국재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복무하
 녀던 것이다. 그사람은 우리 남포를 존경하였으려, 그사람
 의 복원은 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었다. 그것은 바르
 클어 변역이 필요할때 1번 내가 늘상방조하여 주었기때
 문이다. 점점 허나님 특별언저, 이런사람의 호언으로나서
 우리일을 전적으로 감싸주어 금속한시일니로 사참김은
 도 끝내군 소련으로 병치료를 받으러 오는것으로 병자
 하고 귀국하였다. 1960년 4월 20 일에 모스크바에 도
 착하였으나, 처음에는 주핵문제 취직문제가 잘해결되지않
 아 방천집에서 큰 어린 살기리였을바 남포의 받은일금에
 여섯식구가 살자하니 경제문제가 넘히화리못하였다. 남포의

진강은 날이 갈수록 허약하여 지어 병원 출입이 자를찌리
 었으며, 무차 임원하였으나 완치 될수없는 병어란것이 확증
 되었다. 무정한 세월은 환자의 운명을 재촉하여, 시간의 갈
 수록 병은 점점 더하여. 환자가 병석에서 일리 못할시기에
 환자는 누워서 자기편 죽음을 애초리하여 몇번간 그의
 눈앞에서 눈물이 흐르는것을 보았을때 나의 가슴은 칼같이
 는듯 하였으나 무엇으로 그를 위로하겠습니까? 온힘을 다
 하여 그의 생명을 좀더 연장하겠다고 애를 썼으나 다 허사로
 가고 애답게도 그는 1964년 4월 17일에 57세를 일기로
 하곤 세상을 하직하였으나, 나에게 오직 남은것은 슬픔과
 고충뿐이어서 나는 어찌해할 함도르리가 없어서 매일같이
 그의 무덤을 찾아 다니는것이 한가리 방축하였었다. <죽은
 자의 길은 멀어가는 법이니, 애들이나 돌보라>는 동지들의
 권당한 권고를 눈물로 접수하고 주원은 돌아갔으나, 죽은
 가정은 좌회리 알아야 되겟하고 결심하고 내일과 보아야
 대답없는 무덤의 길 희생을 잘리었다 처음 생각에는 언제든
 직장에 출근하여 가족살림도 취치우려 하였으나, 나로 역시
 몸이 약하여서 병원에 공<관>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할수
 없어 가정 경제 형편은 하루이더운 형편이 취하여있
 게 되었던바, 1965년에는 장구히 앓던 간장염끝에 단
 랑 수술을 하게 되었다. 본래 자기 몸도 변변치 못한데다
 남편이 병시중을 약 3년간 하였기 다음 간장염 뒷끝
 에 단랑수술을 지내고 보니, 앞으로 약 일년간은 일에 딱
 딱하게 참가하여 가정형편을 취세울 형편이라고는
 전혀 아득하였다. 이때에 남편의 옛다정한 친구들이 몇
 령간 병문안을 왔다가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서신으로

8.
공권이 없으니까 아마도, 안운경의 가족을 살려야
되겠지요, 결론에 합의된 다음 그들 몰다 신문사, 싸하
린 신문사, 각 출판사 등에서 일하는 이들, 각 대학, 전문
학교, 중학교 등에서 당시 복잡한 국가 일정을 보시는 안
운경 선생의 권유로 각기 가족들의 예산을 축적
해가면서 우리 집에 농부한 금액이 무천원여 되어서
우리는 몇해간 아이들의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나의
병도 완치되어 나는 1967년에는 실한 동부들과 함께
과고봉지 농사에 나서게 되었다. 처음 생각에는 백가
환 1-2년 가서 거저 먹고 살 수 없는 돈이나 생기면
그만 둔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고봉지 최소판" 여기에
운명을 지행할 일간들은 "전부다 무법천지, 비도덕적 집
단 생활을 눈을 감고 살아야 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눈을
뜨고 물면서 자기 신세 원망에 행여나 금년 가을에
노쇠하겠는가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겠다. 나는 현재에
와서는 회고하기도 물려진 그 생활에서 20년을 지내
느니 그동안 별 "사고" 들은 다 보았으니, 나의 몸이 바위와
살은 다 죽어 시들고 약하게 되고 오장육부도 피폐한 제
대로 일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80 고개를 넘었으니
어제 앞으로 부업을 허망하겠습니까?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다만 운명의 날이라고 해야지요. 내가 사와오 동경
로에서 출업과 고생은 해산과 같이 컸으나, 즐겁고, 괴로
웠던 전부다 나의 열로 수취되거나 같습니다. 옛날 조선족
답에 - 낮은 장남이오, 고생은 장고생이라 - 고 한 말어 꼭
나의 생애에 맞아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왜 나에게 고이적으로 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

이 밖의 남이 못살고 망하는것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⁹
는가? 이것은 자기 양심을 헐까스로 자기 상권에게 부리쳐
판아려고, 인간적 도덕이 없이 그날로 날은 사라지는놈들의
행동이라 할지, 그놈들의 죽이라고 해온 약쟁이다.
어제 한가지 레를 들켜로 하자. 우리가 평을 출판할때다.
나는 평양을 떠나기 몇일 전에 당 이종분제대원에 내라 알하면
대학에 갔을때에 대학 간부부장어 물기를 - 25 일날 12월 시
회에 떠나는가 하고 물기에, 나는 호후 오시라고 대답하였
다. 그대에 간부부장은 - 우리 대학에서 차를 보너풀하여
니 집에서 끄기다리라고 하였다. - 그래서 우리 식구는 25
일날 집에서 호후 한시간까지 기다리여도 차가 오
지 않았고. 우리가 죽을 전봉하려 평양 역전에 나왔
던 여러 친구들은 무슨 사고가 생겼을 알고 차기차들을
타고 우리 집에 달려왔다. 이때에 별다른 불감할사어없
이 승용차들에 어사집, 아어들은 걸어살고 역전에 급
속도로 달려가니 기차는 벌써 떠날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는 떠날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죽어 역전 나오지 않았
기에 예상하지 여기까지 기다리던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평
집, 사람 할것 없이 승용차에 되는 실체 역전에 도착
하였으니 그들로 환경은 아라쳐우고, 짐, 아어들을 할것
없이 차복로에 되는데로 승서없이 물리는 때에 차는
별다른 걸음을 시작하게되었다. 이 환경에서 아어하는
비취 차에 오르지 못하여, 아이라 열면서 차를 따라,
달아오 오고 있었다. 이 환경을 발견한 방환주(농여사의
사위)는 급속도로 달려가서 아어를 안아서 맞이막 차
량복로에 물리 놓았다. 이때에 안선생은 고도로 패왕
된 신김은 정돈하기 위하여 농여사의 걸에 앞인에서 물

화기를 - 이것이 다 나의 불찰이오 - 하였다. 이후 농 10.
여사 가족은 차량내에서 짐을 정돈하며, 아주 고되게
놀라서 오래동안 쉬는 것이 없고, 차에서 떨어졌던 아
이로 달려서, 어른만려주는 사이에 어른 할아버지 신
의주 역에 도착하였다. 벌써 평양을 출발하기 전부터
안운경 선생의 가족의 불조절을 어루어 끼리끼리 내뿜
게하여서 연 해간 광택은 파한을 주려고 기도하던 안
선생의 심복자들은 계속해롤 기치려고, 벌써 신의주
역전 안전부 열차 행객들의 물리낌과 극경우이 내에게 전
화가 전달된 것은 확연하였다 특별히 안운경 선생이사
짐은 똑바로 가 행숙박하듯이 매끔 터미를 풀어보았으
리라, 물가방에 들어있는 의복들은 매 건지마다 들어내 훑어보
는 검열을 당하였다. 이때에 봉여사는 다시 한번 눈물을
- 정말 우리 주인의 노예이라더니, 그것은 과어 나쁘지 않다. 권은,
부분적으로 허기심이 많은 사람같은데 이란 이사가는 기회를
리용하여 소비준량이나 행 행행하게 말겠다. 아편같은
라약이나 몇 근사서 이사집에 넣었다하면, 우리가
죽은 국경에서 체포되어 가리도, 오지로 보내졌을 것이다.
보통적인 이사집은 큰상자나 가방들은 다 열근세일
하게 보지 않을 것이지만 이번에는 유다르게 큰 우박을
당하였다. 그러므로 무사하게 국경 검열소를 통과하고
알록강 철교를 지날 때에 봉여사 가족은 큰 한숨을
길게 쉬면서 눈물짐은 눈길로 아름다운 고향 땅을 눈
물까지 양근 권너다 바라보고, 또 다시 바라보았다.

평양 역전에서부터 안동역으로 통과할 때까지 모든 실경적
 용격을 받아서인지 또 또 하던 내경선이 인제는 허물어져
 지면서 온몸의 오강육육이 다 문허져 내리는 같은 것이 보
 진 난태를 견디는 것 같기로 하였다. 그러나 용여사는 쓸리노짐
 을 억제하면서 그분한 마음을 또다시 되고 하였다.

첫째로, 아비가 차를 차지 못하여 울면서 달아모다가
 기차에 차를 변한 하던 일,

둘째로, 우리 이사 걸음을 가를 박노라고 께를 꾸며 조적
 한것을, 우리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믿고 열애를 헌신 할공
 하였는데도, 서거품 눈물과 한숨으로 우리 선조의 고향,
 즉유대의 고향을 하직하고 떠나는 순간에도 종오스리 문행
 등을 한것을. 용여사는 자기가 밋이 막 눈도 감은 때까
 지 잊지 못하겠단 생각하였다. 그제다 또한가지 출가
 되는 골아 품거리는, 아무런 철칙도 없는 평양에 단리 석위
 활극 하나만 믿고 따라타를 떨쳐두고 온 놀레다. 이상과
 같이 막중하게, 양과같이 문한사람들에게 해를 일으켜고
 별별 야망을 다 부리는 그 땅에 누구를 믿고 따라타
 를 떨쳐두고 우리는 살겠단 귀국한단 말인가. 함가슴이
 터질 일이다. 따라타는 용여사네 가족이 평양 외부성
 의 초청을 받아 모스크바를 출발하는 해에 즉 1954년
 에 모스크바 외국어 대학 영어과에 입학하여 공학을 하게 되
 었는데, 그의 상대자, 즉 사위 될 사람은 모스크바 국립공
 한 대학 철학부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학들을
 졸업한후 평양에 돌아와 따라타는 외국을 출판사로 명
 한 출판부에서 일하였고, 황금산 평양 사대 철학부에서

일하였다. 새로운 결혼한 후 계속 동여사의 집에서 살다가
 이번 이사를 할 때 아사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 후엔
 취하는 당에 딸을 권위하고 오노리서 후에 눈물로 결사의
 가 없었다. 따라라는 자기 복원하고 영구한 이별이란
 것을 알지 못하였어, 우리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총생각
 에는 이러한 좋은 기회만 생기면 다시 한 곳에서 살 것
 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이런 불서리치는 고통은 겪으며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그런지, 안선생은 평안히 짐살겠다고
 생각하고 이사하였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안선생은 일
 주일에 몇 번씩 권위하에 가려하였다. 일은 시작하였으나
 별을 출근하는 날이 없이 계속 진단서를 가지고 뜬은 하서 먹
 고 살려 하였다. 하루는 안선생이 완전히 침대에 놓여
 어 있을 때 말하기를 - 여보, 아마도 나는 살려남이 적으며
 따라라나 한번 보고 죽었으면 편이 없겠다고 하였다 -
 마침 어디에 쓰련에 출장왔다가 돌아가는 언젠가 왔기에
 자세한 편지화 가정의 모든 환경을 자세히 이야기 하였어 나,
 몇일 후에 따라라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제야 난기로
 -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할 병에 걸려 신음한다나, 나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나의 아버지는 마담이 악극 공연하러
 어느때나 너그럽고도 인자한 나의 아버지가 무슨 하적으
 로 언하여 그런 병에 걸렸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편지를 가지고는 언젠가 다시 찾아가 눈물로
 눈리면서 물어보고 또다시 물어볼 다음 어어 상복에다 여
 행권 모형을 내었으나 전혀 허락하지 않아 못본다. 나
 연이 적어 빛을 뻗어왔다. 속하고 안하까운 맘으로 눈
 물은 눈리면서 쓴 편지가 확연히 알려왔다. - 그 인자하신
 아버지를 영영 다시는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심장이
 허리는 것 같은 흐로운 눈물로 멈출수 없어서, 어머니 역시
 계속 살수 없으리라 - 라고 썼다. 나는 내 딸이 쓴 구절의

내용은 배제시키게 느끼면서, 내 자신의 표정양 외투성에 편지를 보낼것을 결심하고, 첫번에 서울 편지에 인차 회답하였기에 그제와 썼다. 몇달을 경과한다음에 5월 초에 편지 편지장의 대답 편지가 돌아왔다. 그런데 첫 편지에는 소기를-정부에서 허가치 않음으로 외투성은 할수없다-라고 쓰고, 다음 편지에는- 그들은 평양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또- 어디에 살고있는지 행방 불명-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번의 편지는 안선생이 사량하신 다음에 도착하였다. 이 편지를 받은 흥미사는 단번에 판단하기를 이 아이들이 사냥검호에 걸려서, 이 죄없는 일간들을 어떤 형지옥에 갖다 치넣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남편이 세상을 떠났던것으로 인한 마음의 화끈도 이기지 못하여 때일같이 침대에 누워서-얼마의 화끈도 한가지 사변이 생겼는지 나도 인제는 공화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따라라는 원래 안선생의 불려에게서 태어난 아이였으나, 어서서 부터 그는 나에게서 자라고, 나와 함께 경제고생도, 식량고생 마음고생도 같이 하여서 천당과 아수런천이도 없었다. 사위-남 황국은 부친이 농촌 협동조합당조 직원으로 일하다가 동족상잔시에 처안대에 불잡혀 희생되고 그의 어머니는 후회시에 임신중 길가에서 해산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의 두남동생은 끝까지 인민군대에 불투하였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그를 처벌하여 어느 특역에서 고향에 귀해나 보내었는지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가 찢리곤 하였다.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겠는지 하여흥 여사는 따라라가 일하러 직장으로, 평양구내 부근대나 관제로, 외투성에도 몇장의 편지를 계속 보았으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런 회답도 못받고, 또 받았대야 더욱런 의사를 없는 지남공들 들을 받을 뿐이었다.

2달과 평양에서 생이별한후 남편을 잃은 처인의 귀국
 간증이 다 녹아내리는 형편에서 "어허이" 김일성이 지르라는
 나라에서는 죄없는 아이들로 정배사리 보내면서도 행방불명이
 라고만 하고 다른 소식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각층에 허탈
 일의 어찌고 무엇일까? 그것도 그것에 사상검토에 걸려서 공
 백한 놀음으로 정배갔던 사람 하나라도 그대로 사라졌거나
 다시 자기 자리에 회복된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좋이나 될
 할터인데, 회복은 고사하고 모두가 절기족이 말았으니 망하고 동
 여사근심은 절 "더 커가고 있었다. 이렇게 안운정 선생이 사망
 한후 6월이란 권세월의 지나서야 동등한 씨는 이권에 따
 따라 하고 한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공부에 불
 장 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나의 동생의 집에 들렀
 다는 것을 나는 알고 그집에 찾아가서 그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사람하고 다자교자를 - 나의 딸과 그
 의 남편 환국에게는 무슨 죄가 없다고 사상검토 결과에
 지방으로 정배사리를 보내였는가? 허나, 그의 대답이
 - 목선 동부는 그의 복원이 제때에 조선국적을 철회하지
 않고 소련에 귀국하였다는 것이며, 환국은 나의 집 너저를
 보아 단녀라는 사건으로 월에서 철적 식히고 농촌으로
 보내였다고 하였다. 동 여사는 그에게 따라라의 결혼
 력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 내가 1957
 년도에 아북리가 불시에 심장마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여서 모스크바에 왔던 길에 북한 대사관에 귀환 문건
 우독처로 가니까 유혹성 관리책업과 황익섭 등류가 나와
 고 말하기를 - 따라라가 순이 맞아 사랑하든 남자가
 없는 것인데 이번결심에 어찌나가 왔을때에 그들의 문건을
 해결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하면서, 환국의 부모의 생분

이 나뉘기에 그들의 관계를 끄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때문에 나는 따라라 하고 후차 미물제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너에게 상당한, 좋은 실감감이 없으니 환곡하고 연
 락을 끊으라고 권고하였다. 따라서, 만약에 꼭 그와 결별한다
 면 조선에 나가서 살아야 할터인데, 조선의 현재 경제 형편은
 세계에서 제일 부화한 나라가 아닌가? 그에다가 배급제도에
 배급은 것은 그렇다하고도 내부 사회경제가 - 사상검도나, 불신분
 자나, 종파분리나 하면서 같은 등등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열방의 길을 걸고 있는 나라에 가서 경제개혁을 제쳐놓고
 라도 마땅한 개혁을 하겠는가? 그러나, 야 당은 너의 생각은 잘
 못된 생각이니 그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하였다. 나는 너의 자
 태, 너의 마음을 항상 나의 호소라고 같이 여기면서 너를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너를 말으로도 잘리라고 하는 말이다.
 권령 그렇다면, 어머니 걱정하세요, 하면서 따라라는 오디움
 만 만날때에 제가 확실한 대답을 드릴터이니 안심하시고
 기다리시요, 하였다. 다음 만날 기회는 봉여사가 평양에 출발
 하기 전날 밤에 만나기를 약속하였으나, 제시간에
 따라라는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는 출발하려야
 되겠는데, 따라라는 오지 않아 나는 혼종일, 또 쓰는 사고나
 생기지 않았나하고, 맘을 잘리서 또 속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근심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녁 해질 무렵에
 야 따라라와 기색이 아주 나쁜 동정모로 나타났다. 나타났었다.
 그래서 봉여사는 뭇기를, 왜 무는 사변이 생겼느냐? 하니
 따라라는 대답하기를, 나는 그와 관계를 형" 끊자고, 하니
 그는 자살하노라고 모스크바 강에 배바질것을 부징원 들어간
 지 내느니, 또 몇일 후에는 그가 라취제 약을 먹고 죽어
 가는것을 곁에 동부들이 구급차에 실어 병원에 보내며 현
 재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라는
 이것이다. 다 나의 잘못이니 나는 무언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고 하
 였다.

많은 말도 안된다고 하겠지, 그것은 아마도 고이적으로 거짓말
 을 꾸미는 내가지고 그를 정배사리로 보냈었다고 생각할 수
 다, 라고 하였다. 선생님! 만약에 황국가 그런 죄로써 사상
 검문에 걸리어 정배사리를 갔다면, 김일성이든 사상검
 문에 받아야 하며, 정배사리로 가야 합니다. 이제 내가 좀
 명하려 합니다. - 전체 인민의 아버지로 자칭하고 그 나라의
 주상으로 밀리면서 자기 복원 정복이 눈이 떠졌게 살아 있
 을 때에 하자우 김성팔 (김책 복수상의 조카) 이하로 연애
 하여, 그 여자가 임신중이 되니, 그 여자는 큰 명망으로 생각
 하였으나, 이 일을 김일성 복원 정복이 알게 되자, 김책 복
 원과 정복병원 산부인과 파랑 이시채하고 세사람이
 음모를 조작하여 가지고 성팔이를 억지로 해산케 하였습니
 다. 이것은 살인 죄가 아닙니까? 애를 죽여엿으니, 김일성은
 이 중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신에 자기 죄는 무라하고
 죄 없는 인민에게 죄를 씌워 정배로 보냈으니, 이것은
 내가 고이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양에 있을 때
 에 김책 선생의 복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더욱더 어
 굴하여 내가 선생님을 빌려서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
 엿으니, 나의 복원은 어찌하면 다라라에게 명행어 및지
 안도록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해이 복장 등
 무는 말하기를, -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세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니까? 하면서 라원 우리복에
 큰애와 명어를 아는 간부가 오주되니까 내 신일 없는 간
 복들을 경유하여 힘써 보겠습니다. 과이 근심하지 마십시
 요 하였다. 그 다음에 그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갈
 라졌던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 다음 삼년의 지나도 아
 무런 소식도 없기에, 나는 생각하기를 무슨 나이가 생긴
 것으로 열정하고 있었다.

그러던차 뜻밖에도 하루는 그라 나를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주번재 변희였음이다. 그가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틀리지 않는지 모르나 그동안 사건해결이 급박하게 변장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할 필요없이 대강 줄거리만 말한다면, 첫째, 그들의 살인죄를 못라니, 한눈에 짐 시일이 걸렸으며, 둘째로, 그 뒤 부모들의 성별을 해명하는데 큰 2년동안이 걸렸음이다. 그러나 결국 좋게 되었으니, 어찌 속한 시일내로 평양에 다시 올라올터이니 기다리십시오 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서로 갈라진 후 오래 동안 그에게서도, 아이들에게서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978년 2월 27일 뜻밖에도 도서출판사에서 근무하는 리선화란 사람이 딸의 편지를 가지고 송여사네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그에게서 딸이 쓴 편지를 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 자서한 이야기를 들었다. 편지 내용은:—어머니 내에게 대하여 조금이라도 근심치 마시오, 우리도 평양에 다시 올라와 나는 전에 일하던 도서출판사에 취직하고, 활주는 고되는 과정에서 건강이 쇠약하게 되어 현재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의 생리별한 애하는 심정을 어기지 못하여 평양 항광동 한때 아버지, 어머니와 또 어린 나의 동생들과 가까이 살던 사해 근방에 가서 몇몇 동안씩 묵도록 하고 흐르는 눈물을 식으며 돌아온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귀일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어 나의 잘못임을 나무치게 되니, 어머니 죽을죄를 짓은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에 상여난 일도 어머니에게 코다한 줄은 알며, 나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하였더니 나는 배척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보고 싶은 마음 동생들도 보고 싶은 마음은 어는날 어는시에든 나의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꼭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어머니 나에게서 벌써 7남매가 자라노라 할 때 12명
 아들 3 형제입니다. 그다음 8년이 지나도록 다나라에
 가서 아무런 소식도 못 알았다. 딸에 대한 생각은 어리
 녀기가슴 한구석에 항상 따뜻하게 품겨 있어 한층리, 한리
 들에 살아도, 꼭 아침 저녁으로 찾아볼까 싶다. 그래서 조
 선독담에, 결국 너인이 남의집에 갔어 드나 들면: - 왜, 정
 신 바뀐 너이 다 집다 나듯 이렇게 잘 드나 드는가? -
 한다. 그런데 봉여사는 친척이 하나 없는 외갓에 살고
 있는 딸에게서 7년 8년만에 소식을 듣게 되니 참 애
 간장을 다노기는 일이었다. 그후 봉여사는 남편이 도라
 가신 이후 소비돈이란 항상 바빠 바빠하게 들어가는 현실
 에서 좀 소비용 돈이나 벌면, 또 남편이 도라가신 일, 언뜻
 에서 고생하는 딸들은 배 밑갈이 집에 앉아서 생각하
 여 가슴을 들는 것보다 동북들과 함께 농촌에 나가서
 신성한 공기나 말이면서 화농나나 하는 것이 좋게다
 고 매년같이 화농나를 하였다. 이렇게 봉여사
 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1986년에 함흥과 추수를 하고
 있는데 9월간에 모스크바 아른에게서 전보가 오기를
 - 다나라가 모스크바에 출장 왔으니 급속히 오라 - 는 내
 용이었다. 일년에서 농사 짓는 것을 결심 맺는 가을 농사 짓
 음이라, 다들 몇 톤이 생기기라 여기에서 결정되는 환경
 이어서 절때 떠날 기회는 없었으나, 큰마음을 먹고, 함
 명하면 망할지언정 어찌하면 딸은 만나 봐야 되
 게다고 화전일은 남에게다 대강 맡겨 놓고 그 즉시
 조 항씨를 타고 비행장에 내달렸다. 비행장
 에 도착하니 두시후면 모스크바를 출발하는 비행
 기는 없으나 표가 다 팔리고 없다고 하였다. 어찌 어

이때에 송여사는 있는 용기를 다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당직 지르자 있는데 그러므로 소용이 없기에 공황장 사무실에 달
 러가 전보문을 내려고 8년간 못본 딸을 좀 볼게 해 달라고 울림
 서 말하니까, 공황장은 송여사의 사정이 딱한 것을 판단하고
 말하기를 - 그렇다면 정부 예비품 딱 한 장 빌려주는 것만
 데, 만약 해방지가 온다면 당신은 할수없이 행각 외투보관
 실에 의자를 놓고 앉아야 하겠소 - 하였다. 이때에 송여사
 는 울음이 흐르던 눈물을 닦으며 배를 북에 달려가 품을 데어
 지고 모스크바에 도착하게 되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니 딸
 과 아들은 벌써 공황에 나와서 송여사를 맞이하러서 말기를
 - 평양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시간이 오시간 밖에 남지 않았
 기 때 눈에 어머니는 이공황에서 따바를 만나서 품이야
 기하고 언차 리벌리여야 되겠소 - 하였다. 송여사는 어대
 에 따바라를 눈물로써 만나고 눈물로써 이별하였다.
 이 둘 둘은 서로 용모조차 자세히 보지 못한 상봉이었다. 열
 분 동안만 서로 만난 상봉이여서 취라리 보지 못한 것보다 더
 아 쉬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96년 가을이었다. 마
 들이 전화하기를 - 어머니 지금 우리집에 복조선 손님 세분이 오셔서
 어머니하고 만나고 하니 숙히오십시오 - 하였다. 나는 제 정신없이
 손에 쥐었던 비누질 거기도 되는 대로 집어 던지고 택시를 타고
 아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만났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은
 나를 보자 언사도 끝내기 전에 편지 석장 즉 - 딸의
 편지, 사위 편지, 또 손녀의 편지 각 장으로 쓴 것을 받았
 음이다. 딸의 편지부터 읽어보니 그 내용이 첫시작부터 막
 이 막 끝까지 살기 좋은 평양에서 원년의 우형 김일성이
 비이 육천적 해례와 존경하는 김일지르자의 명령한 귀
 포아래에서 북조선은 지상낙원이 되어서 자기들은 남부

글을 써서 잘 쓰고 읽은 어머니의 아름다운 걱정근심을 말하든
 내용이였다. 그리고 보태여 자기들은 환갑도 잘 되고, 지금
 은 연금생활을 하든 아이들은 다 세간이나 자립적 생
 활을 한다고 하였다. 편지 내용은 아주 훌륭하였으나, 나의
 유머는 기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만약 그렇게 쓰지 아
 나하면 그 편지가 나에게 전달되지 않게 될 때 때문에, 자기들
 이 그 정책 아래에서 살기 위하여 썼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였다. 용여사는 편지 내용이 전항 허위란 것을 비판하게
 하면서 한가지 바른 질문을 하였다: -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
 문제로 인하여 인민들이 반쯤은 굶고 사는 형편이란다
 그들에게는 무슨 경제 제반이 있어서 환갑을 차렸더니 일
 기 어렵습니까 - 하였다. 그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기를 -
 어머니 한편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북조선은 현명한
 김정일 지도자께서 인민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북조선은 문화 경제 발전이 대폭도로 화갑이다. -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글어 허위잡담을 치는 것을 (우리들은) 비판하면서
 서도 용여사와 아들은 목이 안아 두자하니 함으로 전갈이
 없는 지경이였다. 용여사의 가슴에서는 누를수 없는 불평과 회포
 는 불처럼 터 올라 숨을 막을 지경이였으나 할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흥 밑에 깔리워 겨우살고 있는 딸에게
 도움없는 악영향이 될것을 생각하면서 용여사는 봄이
 좀 피롭다고 하면서 결방에 의하여 나갔다. 아들은 눈치를
 차리고 내가 있어 있는 방에 나왔을때, 용여사는 아들에게 하
 이르기를 - 손님들이 저녁식사를 다 하였으면 딸말을 길게 하
 지 말고 될수없는대로 속히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때에 아들은 대답하기를 - 어머니 걱정마세요, 식상에 여
 러가지 물들을 몇병 놓았더니 조금 곱픔을 가리지 않고
 권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자체로 부터 다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이 때에 용여사는 생각하기를 북한에서는 아무런

중히 삼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출장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술사들은 돈이 전혀 없어, 평양극언에, 공자현 양재 물을 먹는다는데, 아바공자 물을 만났다고 있는대로 다 말이고, 집으로 정하게 돌아갈 손님들이 간다는 인식나, 감색하 단인사로 많이 돌아서 나가다가 그 풍한 사람을 물어뒤에서 넘어뜨려 다 알고, 또 다른 한사람은 자기 신발을 찾아 못하여 멍하니 서고 있기에 곁에 사람들이 신을 찾아 신겨 주니 복돈을 흥하여 용강기 구까지 나가는 것을 동역사는 바래두고 잘가서라고 하였다.

손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동역사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인도 속이 좀 쉴 수 하라 늘 생각해 내면 네나, 나를 찾을 수 없으니, 어머니는 지금 휴양 중이고, 너는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필수 없으므로 그들과의 대면을 회피하라, 강 부하였다. 동역사는 계속하여 아들에게 강 복하기를:— 앞으로 그들과 다시 만남을 필수 없으므로 회피하라, 회피해서, 계속하여, 그들은 김정일 발흥 아래에서 공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를 흥하여 무슨 국가적 비밀이나 함지하려 다니는지, 밀기 아주 어려운 인간들이다, 하였다. 때문에 그들과는 무슨 말이든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라, 하였다. 그 몇 달 후, 그들은 또다시 아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그때, 아침 늦게가 전화 수화기를 들고 말하기를— 아부지는 현 재를 잘 좋아, 할 네는 병으로 인하여 입원중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는 그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없었다.

하위겐스에서, 1998. 10. 21. 실영자의 정서.

동등한 여사 생애에 대한 몇몇 말

나는 이때까지 여성간부들에 대한 양역은 쓰지 않았다. 조선 정부로 부쳐 파견받아 북한에서 사업하신 여성들이 많았으나 (김소피아, 김해경, 장안도나 박정애 등) 박정애 여사를 제외하고서는 북한 정부나 조동당 중요조직에서 일한 분들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특별적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따라가 북한에서 사업하신 분들도 있다. (예하면 박4레스다, 강아나브다시아, 채단나, 정류드(원라)] 이분들은 전부다 각 종 대학 등에서나, 평양 육고공에서 교원으로 일하시였다. 양역을 쓰자면 여자들에게 한하여서는 박정애 여사에 대한 양역을 쓰야 되겠으나 그 여사가 북한에 나가기 전까지의 조선에게 실시 역사는 다만 - 박정애 여사의 분령은 최우레라 미, 그 여사는 1935년에 원릉변강소왕령에서 한인 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브르크 (국제 혁명 협회) 계층으로 북한에 파견 되어 가셔서 사업하시다가 체포되어 1945년에 조선이 월계층 최하에서 해방 때까지 감옥생활을 하였다는 것밖에 알수 없다. 그런데 동등한 여사에 대하여 쓰게 되는 것은 그분의 양역이 북한에 나가 개인 여러 조선 출신한 인녀성들의 생활과 공흥적인 것이 많으며, 또 그의 생활이 북한 실정과 북한 어떤 생활과 특별히 잘 연결되어 있을 것기 때문이다. 또 동여사는 안원경 선생의 12명의 어머니로서 안선생의 1964년에 세상 떠난 어복 큰일까지 삼십여년 이상 건전하게 살면서 북한과 길의 연결된 생활을 계속하여 북한에 4명의 동군을 둔 할머니 또 모스크바에 4명의 자식 12명의 동군을 둔 어머니 - 할머니로서 그들에 대하여 밤낮 걱정하여 아

아니면 전화로써라도 따뜻한 정이 갖드릴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문에 송여사의 양역은 북한에
 가서 사임하신 노련 출신 여성들의 양역이 따로
 안된경 선생의 격사의 기록이려 나타가서는 북한
 안의 생활의 기록이려 하다.

1998. 11. 07. 박유겐에서 강영용.